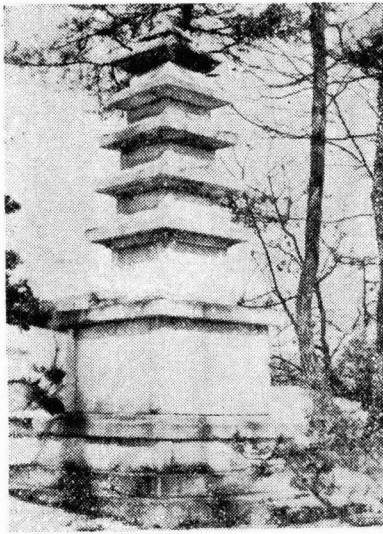


以上과 같이 題跋文中에는 判讀이 不可能한 字가 있으며 또 李仲元이라는 人物에 對하여도 알려진바가 없고 華村이라는 地名亦是 밝힐수가 없으나 後補를 期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다만 간단한 紹介에 그치기로 한다.

### 葆華閣의 石塔

金 禧 庚



(1) 五層石塔(塔婆目録總 P. 4 NO. 27)

總高三·九二m의 整齊한 塔으로 五層屋蓋만은 他塔의 것을 엮힌듯 함 地臺石위에 下層基壇이 놓였는데 中臺石四面엔 各面三씩 眼象을 刻하고 下臺甲石은 二枚石이며 위에 뒷받침 二段造出함 上層基壇은 四面石으로 各面兩隅柱과 撐柱一씩 刻出하고 上臺甲石엔 塔身괴임을 三段마련함. 初層南面에 鏤形을 刻함 層마다 屋身과 屋蓋石이 各一石造이고 二層은 初層에 比하여 減縮率이 甚한편인데 屋蓋落水面은 短促함 屋蓋받침은 四層까지는 四段씩이고 五層만이 三段인데 若干 비틀어짐 相輪部는 露盤과 覆鉢이 一石造이고 귀퉁이 있음 眼象이 鮮明하여 麗代의 特色을 잘 나타낸 點과 隅柱를 비스듬히 刻出한 것이 注目될 拜禮石이 있음.

實測值(單位cm)  
 基壇高 幅 撐柱 幅  
 甲石長 甲石厚  
 下層 一四·〇 一四  
 五·〇 一四〇·七  
 一·一〇

上層 六九·〇 一一三·五 一二·五 一三一·〇 一一·〇

塔身高 幅 隅柱 幅 屋蓋長 轉角 露盤高 一一·〇

一層 四一·〇 六六·五 一〇·五 九六·五 九·五 地臺石 幅 二二九·〇

二層 一七·〇 五九·〇 九·〇 八八·五 九·〇 地臺石 高 一六·〇

三層 一六·〇 五四·〇 八·八 八二·〇 九·〇

四層 一四·五 四八·〇 七·八 七五·八 八·五

五層 一一·〇 四四·〇 七·五 六三·五 五·〇

(2) 葆華閣庭三層石塔(塔婆目録 P. 4 NO. 28)

現高二·四五m의 아담한 塔임 地臺石(二枚로 後補) 위에 蓮花紋下臺石이 놓이고(覆蓮瓣各面三枚씩) 造出된 二段의 받침위에 간석이 있고 그 위의 蓮花紋上臺石(各面에 仰蓮瓣三枚刻)은 二段의 塔身괴임을 造出하여 第一塔身을 받음 屋身은 通式이고 屋身, 屋蓋石은 各一石造이다. 屋蓋石落水面에 완곡이 있고 괴임 一段을 造出 轉角은 返轉이 있어 輕快한 感이 있다. 屋蓋받침은 各層이 三段이고 二層부터 減縮率이 甚하고 相輪部는 露盤과 覆鉢이 一石造임.

實測值(單位cm)

地臺石 高 幅 隅柱 臺座高 幅

二七·〇 一六〇·〇 下臺 二一·〇 一一〇·〇 上臺 一八·五 九一·〇

간 석 四二·五 六六·〇 五·〇 露盤 高 九·五 覆鉢 九·〇

屋身高 幅 隅柱 屋蓋長 轉角

一層 三〇·五 四六·五 八·五 七五·五 一〇·五

二層 一〇·五 三六·五 七·〇 六三·〇 一〇·二

三層 八·五 二七·七 五·五 四八·〇 一〇·〇

(3) 葆華閣後面三層石塔(塔婆目録 P. 4 NO. 28)

現高三·五五m 相輪部는 一石造로 後補各層屋蓋石이 다름 地臺石上의 基壇은 各面四枚石인데 二枚는 各面隅柱와 撐柱一을 刻하고 二枚는 各面隅柱만 刻함, 甲石에는 副緣과 塔身괴임이 三段 各層屋蓋石과 屋身은 各一石이고 一屋身南面에만 扉形속에 鏤形을 模刻함 屋身은 層마다 各面에 隅柱를 淺刻하고 一, 三層屋蓋의 落水面의 勾配가 急함 屋蓋石

받침은 一層부터 各五、四、四段임 潤松께서 日人과 熾烈한 競争 끝에 入手하였다고함.

實測值(單位cm)

基壇高 幅 撐柱幅 甲石長 甲石厚

五〇・五 九五・五 一四・〇 一三・〇 八・一五

屋身高 幅 隅柱幅 屋蓋長 轉角

一層 五三・〇 六三・五 一一・〇 一〇・〇 一一・〇

二層 二二・〇 四一・五 八・〇 八二・〇 九・〇

三層 一八・五 三五・〇 七・〇 六一・〇 七・二

(附) 塔材(塔婆目錄 P. 4 NO. 26)

二枚石으로 된 地臺石 위에 屋身이 하나 놓였는데 一面佛(如來坐像)이 있고 上面에 舍利孔이 마련되어 있음이 注目된다(正四角形으로 판속에 圓孔) 甲石一、屋蓋石이 三箇남아 있다. 手法으로 보아 麗代作인 듯、

實測值(單位cm)

屋身高 幅 隅柱幅 佛像高 舍利孔一邊長 同深

四八・五 五七・二 一一・五 三六・〇 一三・〇 八・五?

追記: 이 塔은 今年 二月三日 浮屠再建時(塔婆目錄 P. 3 NO. 22) 을

겨져 他塔의 屋蓋石과 함께 屋蓋石만을 五枚 쌓아 올려짐(但 四層 屋蓋石은 위에 屋身造出) 또 그 옆에 鍵形이 模刻된 屋身 위에 屋蓋石 만이 二枚 남아진 塔도 세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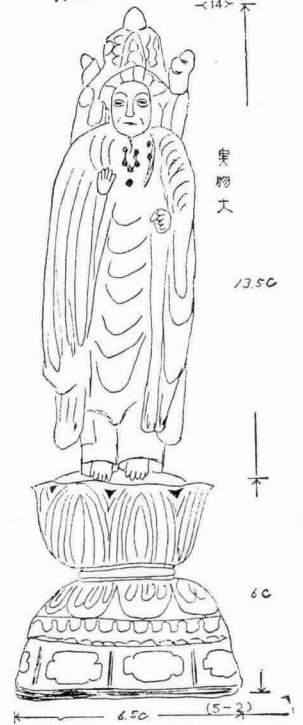
### 青銅製立佛

洪 思 俊

去年十二月頃에 入手한 青銅立佛은 昨年秋期에 洪城郡 長谷面 天臺里 天臺山麓에서 耕地整理를 하다가 農夫가 發見한 것이라야 하는데 高麗末로 推定되는 立佛이다. 立佛의 形態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第五卷 第二號 通卷四十三號

青銅立佛(天台山出土)



青銅立佛(天臺山出土)

머리에는 寶冠을 썼고 寶髮이 左右兩肩後로 드리어 있고 天衣는 발끝까지 드리웠고 가슴에는 瓔珞이 걸려 있다. 面相도 毅然한 態에 左手는 手를 枕해 앞으로 내밀었고 右手는 손을 펴서 施無畏印을 한 것이다. 前面에서 볼적에 몸이 若干 右側으로 비튼 感이 있는데 左便의 右腕을 意外로 右側에 치우친 關係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蓮臺座는 上下蓮臺로 되었는데 蓮瓣이 雙葉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下蓮臺 아래에는 眼象이 陽刻되어 있다. 上下蓮花文과 下眼象은 동근臺座에 各八區의 區域으로 나뉘져 있다. 後面에도 頭髮과 衣文이 陽刻하여 있다. 各線條가 鈍한 便이다. 胸部內面에는 鐵足이 가로 걸쳐 있는데 製作時에 型을 保存하기 爲한 鐵足으로 認定된다.

이 作品은 그리拙作도 아니고 그리 傑作品도 아니나 當代의 佛像研究에 一助가 있을듯한 立佛로 보인다.

總高一九・五cm 立佛高一三・二cm

이 青銅製立佛 全面에는 胡粉을 칠한듯 靑綠色이 全面을 덮었는데 다시 손질하여 보니 製作時의 靑銅佛色이 나타났음을 添言하여 둔다.

### 驪州 金沙面 石佛坐像

李 殷 昌